

# 10~11월 '수출 플러스' 기로 이어가

### 11월 수출 전년 대비 7.8% ↑ ... 반도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7.8% 증가하며 10월에 이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시에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72조596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째 플러스를 지속한 것이다. 수출물량도 증가세(4.0%)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 수를 경신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2.9% 증가한 95억 달러(12조3595억원) 수출을 달성,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석유화학(5.9%), 바이오셀(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11월에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14조8062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0.2% 하락하긴 했지만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나갔다.

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14조558억원)를 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으며 아세안 수출은 98억 달러(12조7273억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유럽연합(EU) 수출도 55억 달러(7조 1401억원)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11.6% 줄어 520억 달러(67조6520억원)를 기록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8억 달러(4조 9438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이상향 모멘텀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시군 건설관련 공무원·토목학회 회원 80여명은 광주도시철도 건설현장을 찾아 지하공사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견학을 실시했다.

## 토목학회 전북지회, 광주도시철도 견학

### 도·시군 건설관련 공무원·토목학회 회원 80여명 참석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형우)는 최근 도·시군 건설관련 공무원 및 토목학회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통한 기술자 역량 강화 및 지하공사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견학은 토목학회 전북지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하여 현장사무실 방문 공사현황 청취, 지하현장의 최신 굴착공법이 있으며, 조선시대 홍수를 막기 위한 담양의 관광제립을 방문하는 등 신·구 토목기술을 경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견학 대상시설인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광주광역시 도시발전의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1호선과 연계한 순환선으로 총사업비 2조 8,722억원을 투자, 41.88km를 2013년부터 시작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새로운 토목기술에 대한 연구발표, 신기술 통합 공유 강연회 선진지연학을 통하여 회원들의 토목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개발사업의 위탁연구·자문 지역대학 대상 장학사업, 토목기술 공로자 표창 등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토목기술 발전의 교두보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견학에 참여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회원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1호선과



### 농협 남원시지부-남원농협 농촌 일손돕기 진행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직원 12명은 지난 1일 남원농협 주산지 일과 농기계로 양파 기계화 정식을 실시한 농가를 방문해 피복 및 배수골 정비 작업을 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남원농협은 발작물 재배 농업인의 기계화를 증대를 위해 2022년도부터 양파 주산지 일과 기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파 주산지 기계화 사업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 해결 대안으로 발농업 분야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농업인 지원사업, 남원시, 남원농협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오영석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은 "남원시지부와 남원농협은 새해에도 함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 전북농협-순정축협, 청소년 복지지원 나눔축산운동 진행

### 정읍시 입암면·상교동 방문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안)은 지난 1일 정읍시 입암면사무소와 상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복지지원 나눔축산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이창환 전북농협 부분부장 고창안 순정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에서 추천한 청소년 25명에게 5백만원 상당의 신발, 가방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작은 물품이지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안)은 지난 1일 정읍시 입암면사무소와 상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복지지원 나눔축산운동을 펼쳤다.

## 국민연금공단, 공정한 장애심사로 장애인 권익향상에 앞장

### 지난 17년간 330만여 건 심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원)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올해 10월까지 326만 9,535건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정도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의 84.4%인 275만 9,591건이 장애정도가 결정되었으며 심한장애가 154만 2,572건,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은 건은 121만 7,019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제도로서 2007년 1·2급 장애인에서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이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미해당 등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되어야 장애인연금 수급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애심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에는 청력장애 직접진단 절차를 3회에서 원스톱으로 단축함으로써 반복적인 병원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며, 신장장애 자동심사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했다. /김옥기 기자

## '함께 · 성장 · 동행'

### '2023년 전북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지난 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와 함께 '2023년 전북중소·벤처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공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을 표창하고 기업들의 사기를 도모했다.

또한 발전협의회와 전북 지역 3개 대학교(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가 주축이 된 전북창업벤처육성프로젝트 선포식과 발전협의회·전북·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협업한 지역혁신리딩기업 육성 협약식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벤처대국을 이끌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중기부에서도 지역벤처투자 촉진과 지역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